

국교정상화 1년... 급증하는 쿠바인 ‘아메리칸 드림’

영주권 특혜 없어질까 밀항 몰려
1년새 2만여명 증가... 혼란 유발
4만명, 코스타리카에 발 묶여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이후 미국행 쿠바난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교정상화에 따른 미국의 이민법 정비로 지난 20년간 쿠바인들에게 적용된 이민 특혜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쿠바인들이 앞다퉈 육·해·공 루트를 통한 전방위 밀항 행렬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쿠바인 밀항자는 2015 회계연도(2014년 10월1일~2015년 9월30일)에 4만3159명으로 전년의 2만4278명에서 급증했다. 이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처럼 보트나 뗏목을 타고 플로리다해협을 건너는 게 아니라 멕시코 접경 등 지역을 거쳐 미국 땅을 밟는 이들이 늘었다. 국교정상화에 따른 연간 비자이민 2만 명을 포함하면 쿠바인의 미국행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WP는 전했다. 1994년 여름 소련 붕괴 이후 쿠바를 강타한 경제위기 탓에 카리브해에서 보트와 뗏목을 타고 쿠바를 빠져나간 엑서터스(대탈출)를 훨씬 능가하는 위기라는 것. 쿠바인의 미국 행렬은 중남미 곳곳에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마치 유럽에서 벌어지는 중동 난민 사태와도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지난날 이후 4만 명의 쿠바난민이 코스타리카에 발목이 잡혀 있다. 니카라과가

통행을 막으면서다. 1000 명이 파나마로 몰리면서 한 작은 국경마을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음식과 물, 거처가 부족해진 탓이다. 에라도르는 쿠바인들에게 입국비자를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규정을 발표해 아바나에서 데모가 일어나기도 했다. 에라도르는 2008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무비자 이민정책을 도입했다. 생필품 등을 사기 위해 많은 쿠바인이 에라도르를 오갔고 그곳에 터전을 잡았다. 그러나 이제 국교정상화로 이민법 정비가 우려되자 이곳의 많은 쿠바인이 버스와 택시를 타고 육로로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행을 택하고 있다. 특히 쿠바인들에 대한 미국의 특혜성 이민 정책인 ‘마른 발, 젖은 발’(wet-foot,

dry-foot)의 폐기 우려가 최근 난민 행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상에서 체포된 쿠바인은 본국에 송환하지만 밀항에 성공한 이들에게는 1년 뒤 영주권 취득자격을 주는 게 이 정책이다. 1990년대 쿠바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미국이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국교정상화 후 공화당 정치인들과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공화) 상원의원 등 같은 이들이 이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법안이 폐기될 것이라는 쿠바인들의 두려움이 한층 커졌다. 최근의 난민 행렬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정책을 혼선에 빠뜨릴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0잔인한 황후 여치

여후는 한 고조 유방의 황후로 본명은 여치(呂雉, ?~BC 180)다. 백수건달 유방과 결혼해 뛰어난 내조로 한나라 건설에 일조했다. 고조 사후에는 16년간 정권을 농단했다. 그녀의 부친 여공은 유방의 고향인 패현의 지주였다. 어느날 마을의 유자들이 초청해 연회를 개최했다. 하급 관리직에 있던 유방은 초청에 응해 여공의 집을 방문하였다. 유방을 처음 본 여공은 그의 비범한 관상에 깜짝 놀랐다. 여공은 유방이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였다. 유방과의 결혼으로 후세 사가들로부터 강의잔인(剛毅殘忍)하다는 평을 듣는 여치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진시왕 사후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진승·오광의 난 등이 일어났다. 유방도 군대를 조직하여 거사에 나섰다. 항우보다 먼저 진의 도움인 함양에 입

의 편에 섰으로써 여후의 승리로 끝났다. BC 195년 유방이 서거하자 태자 유영이 뒤를 이어 해제가 되었고 여치는 황태후가 되었다. 그녀는 개국공신을 일거에 숙청할 계획을 세웠다. 측근 심기기는 “그들은 수십만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만약 그들을 숙청하려 하면 필히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며 반대했다. 그녀는 연적인 척부인에게 화를 돌려 척부인의 두 눈을 파내고 두 귀를 멀게하고 병어리로 만들었다. 돼지우리에 던져 넣어 ‘인간 돼지’라 불렀다. 그녀의 잔인함은 중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충격을 받은 해제는 정사를 등한시했다. 이를 계기로 여후의 16년간에 걸친 권력 농단이 시작되었다. 자신의 조카인 여산 여태 여복을 중신으로 삼고 군권을 장악하였다. 한 고조의 유지를 이기고 여씨를 왕으로 발탁하려 하였다. 재상 왕릉은 전례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그 결과는 정계 은퇴였



합동 결혼식 치른 151명 신부들 6일(현지시간) 인도 수라트에서 151쌍의 커플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가운데 신부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합동 결혼식은 수라트 지역의 한 다이아몬드 거래상이 주관했다. 그는 이전에도 수 년간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여성들을 지원했다. 인도에서 신부측은 신랑에게 지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결혼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연합뉴스

오바마 “총기난사 사건은 테러...강력 응징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샌버나디노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정치적 수세 국면에서 정면돌파 카드를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미국 동부시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총기난사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고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천명했다. 이번 대국민 연설은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 정부의 테러 무기력증과 안보 불감증에 대한 거센 비판과 국민적 불안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테러 행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당에 빨랫줄 달게 해주세요 제발~”

美 5개주 ‘빨래법’ 제정 미국에서는 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를 막론하고 빨랫줄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 주택 단지의 임대, 관리 등을 맡는 주택보유자협회(HOA)나 아파트관리회사가 외관상 보기에 안 좋아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입주자에게 빨랫줄 건조를 막는 게 주요한 이유다. 집 마당에 빨랫줄을 달아 건조할 수 있는 ‘빨래 말릴 권리’(right to dry) 법을 제정하는 주가 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콜로라도·메릴랜드·메인·버몬트 등 5개 주가 이 법을 제정했다. 미국에서 가장 환경을 우선하는 곳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공식 발효된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예식장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24시간 OPEN!!



솔향기맑은터 검색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